

6월 투표 공약 지키고 국회엔 합의 촉구

국회 논의시간 60일 보장...여야 개헌안 합의 철회

문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개헌 절차와 정무적 요소 등을 두루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우선 26일이 개헌안 처리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고 개헌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또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 심의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3월 26일의 합의는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78일이 필요하다. 국민투표법 제7장 49조에 따라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5월 26일에는 국민투표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보다 하루 전 날인 5월 25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여야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논의할 최대한의 시간인 60일을 보장하려면 이날 26일에 발의해야 한다. 또 '개헌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항 준수에도 이상이 없다.

◇다중 포석=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청와대는 26일에 반드시 개헌안을 발의할 필요는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알마는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투표 공고 기간 18일을 포함해 78일의 날짜를 준수하고자 한 것은 그만큼 대선후보 시절에 국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꼭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당의 요청을 수용하는 동시에 여야 전체에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숙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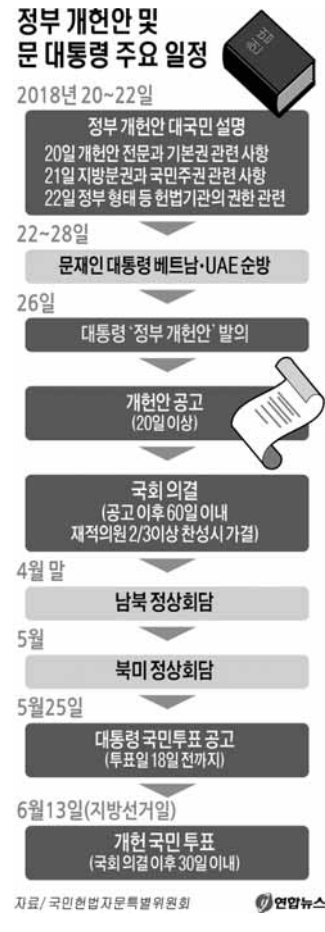
달라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회 압박=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하루에 한 번씩 ▲전문·기본권 ▲지방분권·국민주권 ▲정부 형태 등으로 나눠 개헌안을 발표한다. 한꺼번에 개헌안을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국민에게 개헌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과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해석된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개헌안을)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밝혀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만 마련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공천관리위 구성 완료

오늘 첫 회의...경선 방식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전라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천관리위원회로는 기존에 임명된 정성호 위원장과 김경협 부위원장에 더해 김민기 수석 사무부총장(간사), 한정에 박경미 이재정 의원,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최아진 연세대 정외과 교수, 강수정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또 심재권 의원이 위원장인 전라공천관리위원회에는 김영진 전라기획위원장(간사), 윤후덕 의원, 이수진 중앙당 공농노동위원장, 정성호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이근형 원지건설팀 대표, 정한범 국방대 정치

학과 교수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 등이 구성됨에 따라 이날 바로 실무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정성호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오전 1차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후보자 공모를 받고 면접과 경선 방식 확정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당 지방선거위원회가 발표한 세부 기준 가운데 추가로 확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정봉주 복당 불허

'성추행 의혹' 발목...정 "서울시장 선거일정은 계속"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성추행 의혹 논란으로 결국 불허됐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당원자적심사위원회의 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배려된 대변인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면서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당원자적심사위원회 지난 16일 회의에서 정 전 의원의 복당 불허하기로 하고 이를 이날 최고위에 공식 보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추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작

년 말 특별사면됐다. 이후 지난달 7일 복당을 신청했지만, 서울시장 출마 선언 계획 당일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는 바람에 출마 선언을 연기했다가 18일 출마 의사를 공식표명하고 무소속으로라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복당이 불허되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은 원칙적으로 복당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은 박원순 현 시장과 박영선 우상호 의원 간 3파전으로 압축됐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제가 BBK로 당적을 잃었는데 그 사유의 복당 불허 이유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면 그에 대한 입장을 정식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일단 선거일정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병호 함평군수 지방선거 출마 포기

안병호 함평군수가 19일 "6·13지방선거 함평군수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 군수는 이날 담화문을 내고 "진행 중인 군정을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선으로 멈추겠다는 입장을 꺾고 다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하지만 정책은 사라지고 소문만 흥흥한 선거는 이제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군수는 이어 "저와 관련된 일들로 군정에 부담을 줄 수 없고, 더 이상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도 안되고, 당원으로서 당에 부담을 줘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며 "뒤편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지만 이 길이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안 군수가 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것과 별도로, 성폭행·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법적 공방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안 군수는 지난해 지방재정 전액을 상환해 '부채 제로(Zero) 함평'을 실현했다. 또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1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전남도 투자유치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등 군정 성과를 이뤘었다.

/함평=황윤희기자 hwang@

대통령 개헌안 발의 연기해놓고...한발짝도 못 나간 여야

정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개헌시기·권력구조 이견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의 시점을 늦추면서 여야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압박했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는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입장 차이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개헌의 시기와 방향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21일에서 시점을 늦춰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지시한 만큼 이를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일정에 끌려가는 개헌을 할 수는 없다'고 맞받았다.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정의장이 "국회의 개헌 시계가 고장인 것 같다"며 "최선은 정부의 안이 나



시작은 웃지만...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정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개헌안 등 정국현안을 논의했다.

있기 때문이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조건을 붙이고 있어 개헌 논의를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3>영광주택매매(급매)</h3> <p>전원주택(영광읍)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p> <p>주인직매 010-6670-9800</p>	<h3>신축 원룸 매매 (원룸전문)</h3> <p>· 월곡동 신축건물 (최고급)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1분)</p> <p>· 총 4층건물 (원룸 12개, 투룸2개) 월수익 550만 예상</p> <p>▶ 매가 8억 5천만</p> <p>① 월곡동,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주인집거주 ▶매가 9억5천만 ②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 5천만</p> <p>010-7384-7800 010-6670-9800</p>	<h3>법률 경매 (주대신경매)</h3> <p>1) 남구 노대동 (상가건물) 어린이집 감정:4억8천7백 → 최저:3억4천1백</p> <p>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호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비됨) 감정가 1억4천4백 → 최저가 8천</p> <p>3) 담양군 담양읍 (무인빌) 감정 30억2천4백 → 최저 16억9천</p> <p>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9억 3천 → 최저3억 3천</p> <p>5)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p> <p>6) 광산구 신창동 (원룸) 감정:3억8천2백 → 최저:3억8천2백</p> <p>7) 광산구 장덕동 (근린주택) 감정 13억1천9백 → 최저 13억1천6백</p> <p>8) 순천시 조례동 (목욕탕) 감정 39억2천5백 → 최저 27억4천7백</p> <p>9) 화순군 도곡면 천암 (숙박시설) 감정 38억7천 → 최저 13억8천</p> <p>10)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근린시설) 감정 7억2천2백 → 최저 3억2천3백</p> <p>11)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주택)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p> <p>12)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p> <p>A.P.T·주택·공장·토지 (기타)</p> <p>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p> <p>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 1억7백</p> <p>③ 남구 주월동 (무등파크) 25평 감정 1억4천 → 최저 9천8백만</p> <p>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p> <p>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p> <p>⑥ 광산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p> <p>⑦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p> <p>⑧ 광산구 삼가동 (공장)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p> <p>⑨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p> <p>⑩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p> <p>010-6670-9800 062)382-5500</p>	<h3>경매교육 (3월초 개강)</h3> <p>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p> <p>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p> <p>3) 경매 평생반 ▶ (특수경매,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진행</p> <p>경매물건 추천</p> <p>① 북구 용평동 (12층 7층상가) 주치원비 (실명시 100평)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4억6천</p> <p>② 서구 치평동 해광한신 (24평) 감정가 1억5천8백 → 최저가 1억1천</p> <p>③ 서구 마북동 (주택)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백</p> <p>[배우면서 컨설팅가능(경험자환영)] 사무실 프리 근무하실분</p> <p>010-6670-9800 062)382-5500</p>
--	--	---	--